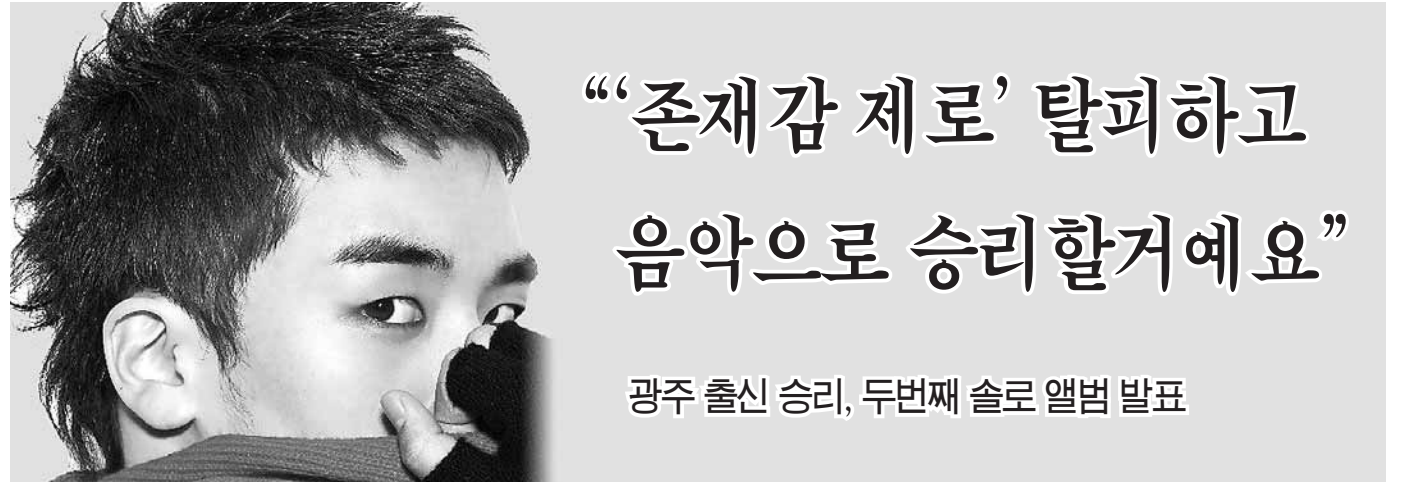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존재감 제로’ 탈피하고 음악으로 승리할거예요”

광주 출신 승리, 두번째 솔로 앨범 발표

승리(본명 이승현·23)는 비빔에서 비교적 가벼운 캐리커다. 유쾌한 성격과 입담을 무기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재능을 발휘한다. 반면 비빔의 음악 안에서는 존재감이 낮았다. 지드래곤이 작곡과 랩, 탑이 랩, 태양과 대성이 보컬에서 뚜렷한 개성을 나타냈지만 승리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었다. 그런 승리가 손수 작업한 두번째 솔로 앨범 ‘렛츠 토크 어바웃 러브(Let’s Talk About Love)’를 발표했다. 앨범에 작사, 작곡,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리며 대중과 멤버에게 꽤 인정받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26일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한 그는 “난 비빔에서 메인 보컬 형들을 뒷받침하는 B파트, 브릿지, 코러스를 맡았다”며 “내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앨범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작곡에 욕심을 부렸던 건 아니다. 대중에게 감동을 줄 곡을 쓸 자신이 없어 단 한 곡도 손댈 생각이 없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테디의 곡을 기다리자니 순번이 10번 밖이었고 지드래곤은 솔로 월드투어로 바빠졌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소속사

양형석 대표가 승리를 테스트하려는 의도였는지 “스스로 해보라”고 용기를 줬다. ‘오더(Order)’가 떨어지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성격인 승리는 합성진, 강유진, 최필강 등의 작곡가들과 바로 머리를 맞댔다. 그는 작곡의 여러 과정 중 트랙에 선율을 얹는 ‘멜로디 메이커’로 참여했다. “제 음악대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유자재로 부를 멜로디가 필요했어요. 랩도, 멜로디도 아닌 저만의 멜로디요. 첫곡 ‘렛츠 토크 어바웃 러브’에서 그 부분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가사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기로 하자 솔을 풀었다. 수록곡 ‘지지베(GG BE)’는 1년 전 6개월간 만난 여자 친구와의 경험, 비밀 연애였는데 알고 보니 여자 친구가 한 달 가량은 자신과 다른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지지베’와 함께 ‘그만 거 없어’ 곡도 같은 날 완성했다. 이별 뒤 남자의 감정이 팔알엔비(R&B) 풍에 담겼다. 여성 곡이 담긴 미니앨범이지만 장르 구성이 꽤 엉려하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가미한 하우스인 타이틀곡 ‘할말있어요’를 비롯해 역동적인 힙합, 셔플 리듬이 가미된 랩 등 다채로운 사운드로 지루함을 덜었다. 그는 이 과정을 마친 후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했으며 음악적인 자신감이 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데뷔한 비빔도 어느덧 종전 그룹이 됐다. 지난해 월드투어를 했고 수많은 해외 무대를 누볐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로는 2011년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때를 꼽았다. “아시아 대표로 참가했는데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이 참석했죠. 지금이야 사이 형이 해외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당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하며 데뷔할 때처럼 설렜어요. 당시 멤버들이 안 좋은 일로 힘들었던 터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보자는 계기가 된 무대예요.” 그는 이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도 돌아본다. “연습생 때 (고향) 광주로 돌아가란 얘기도 들었죠. 잘하는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는 양형석 대표님이 연습생 6개월간은 절 ‘너, 빨간색(모자, 옷)’으로 불렀죠. 무관심이 참 외롭고 불안했어. 그래서 전 연습생을 이름을 모두 외웠죠.” 승리는 “비빔은 대화로 문제를 풀면서 팀 활동의 균형을 잡아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다”며 “양 대표님도 서태지와아이들 해체 때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비빔은 정말 오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필뉴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Includes categories like '06:10 세계의 눈', '07:00 미술탐험대', '10:50 최고의 오리버걸', '15:00 열려라 아비디스', '18:30 생활송 보나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Includes categories like '00:00 생활송 EBS 교육대론', '11:40 <강승희의 윤리와 사상>',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10 <수학 5-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of horoscopes for the 27th of August. Columns includ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birth years and运势 (fortune). Includes text like '36년생 부대하여 처리하는 것도 좋다.', '48년생 힘써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 관객 사상 첫 월 2천만명 돌파

‘설국열차’ ‘더 테러 라이브’ ‘숨비꼭질’ ‘감기’ 동반 히트

한국영화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월 20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영화를 본 관객은 2436만463명이다. 이는 ‘7인방의 선물’과 ‘베를린’이 상영이 흥행을 한 지난 2월의 1809만명과 ‘도둑들’이 흥행한 작년 8월의 성적(1701만명)을 능가하는 수치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비롯해 ‘더 테러 라이브’ ‘숨비꼭질’ ‘감기’의 흥행이 잇따르면서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설국열차’는 약 880만명을, ‘더 테러 라이브’는 540만명을 끌어모았고, ‘숨비꼭질’도 407만 명을, ‘감기’는 약 270만 명을 동원했다. 4편의 영화가 동반 히트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영화 매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액 점유율에서는 78.9%로

2006년 10월의 85.3%보다 뒤지지만, 매출 총액은 1456억원으로 역대 1위다. 당시 한국영화 관객은 629만명에 불과했다. 8월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일주일가량 남아 있는 데다가 ‘한국영화 4인방’의 기세가 여전한 매서워 8월 한국영화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강호동 vs 이만기 치열한 대결, 옷나무에 배인 장인의 탐, 현준이의 꿈을 찾아서



우리동네 예체능(KBS 2 밤 11시20분) = 전 국민을 위한 건강충전 프로젝트 ‘우리동네 예체능’. 예체능팀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오론관’을 방문하게 된 예체능팀. 선수들의 화려한 움직임과 뜨거운 열기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다. 예체능팀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학관 코치의 지도 아래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된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모래관 특훈’. 균형감과 손발력, 근력, 집중력까지 1타 4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래관 특훈에 이만기는 “국제 선수들이 모래관에서 훈련 하나?”며 반색을 표하는가 하면, 강호동은 “모래관 가면 피가 끓어오른다”는 말로 강호동 vs 이만기의 맞대결을 기대하게 했다.

한국기행(EBS 밤 9시30분) = 함양 마천면의 중마마을에 가까이하기 두려운 나무가 있다. 바로 옷이 오르면 보름여 낮지 않는다는 옷나무. 함양의 옷 장인 장시돌 어른에게 옷나무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재산이자 한평생을 같이해온 친구이다. 두통하게 살 오른 옷나무 줄기에 칼로 흠집을 내서 옷잔액을 얻는 장인, 손가락 마디마디 까맣게 옷때가 배인 장인에게서 옷과 함께한 진한 인생이 묻어난다. 송진만을 어른들에게 가장 익숙한 나무는 싸리나무와 대나무이다. 어른들은 싸리나무 한 다발에 흠 줄기를 엮어 빗자루를 만들고 푹푹푹 대나무를 다듬어 곡식을 태우는 도리개를 만든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삶 옆에 함께해온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35분) = ‘현준이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지난해 여름, 경북 칠곡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그 끔찍한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현준이.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가스 폭발로 현준이는 온몸에 유리가 박히고 몸의 70%에 2~3도의 중화상을 입고 말았다. 유리 파편을 빼는 수술만 7시간. 그 후 여러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동안 현준이는 생사를 오갔다. 그 후 1년. 화상의 고통은 흉터로 남아 아직도 현준이를 힘들게만 한다. 사고 전, 요리사를 꿈꾸던 현준이는 이제 가스 불조차 켜지 못했다. 화상의 고통으로 죽고 싶었던 현준이는 사고 이후 찾은 우물증으로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다. 과연 현준이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꿈을 찾을 수 있을까?